

“외로울땐 ‘똑똑’ 하세요”... 서울시, 외로움 전담 콜센터 가동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 발표 온·오프라인 플랫폼 ‘똑똑24’ 구축 일상 활력 높이는 챌린지 프로그램 생활밀접업종 활용, 고립 발굴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2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로움·고립·은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언제든 도움 요청이 가능한 24시간 플랫폼을 마련하고, 은둔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1인가구가 자주 찾는 편의점, 빨래방 등에 협조를 구해 점점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찾아낸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실시해 15분 외출과 같은 맞춤형 처방을 내려 일상 회복을 돕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공원, 문화공간 등 열린 공간을 확대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로움·고립·은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 시장은 5년간 총 4513억원을 들여 ‘함께 있다, 연결 잇다, 소통 잇다’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해 서울시민 누구나 외롭지 않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시는 외로움을 느끼는 서울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구하고 상담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똑똑24’를 구축한다. 내년 4월부터 시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외로움 전담 콜센터 ‘외로움 안녕 120’을 가동한다.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건 뒤 특정번호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바로 연결된다. 상담원은 1차 기초 상담 후 내담자를 지

원 기관에 연계해주는 임무를 맡는다.

시는 어렵게 도움을 내민 고립·은둔 시민을 위해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긴급 개입, 심층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상 속 활력을 높여 시민들의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한 ‘365 서울챌린지’도 추진한다. 자연 힐링 나들이, 스포츠 등의 생활 프로그램이나 책 읽는 야외도서관, 잠수고 뚜벅뚜벅 축제와 같은 서울 대표 행사와 엮어 챌린지 형태로 진행한다. 챌린지에 성공하면 활동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서울달 탐승권, 한강캠핑장 이용권, 서울식물원 티켓)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한다.

고립·은둔 상시 발굴 체계도 강화한다. 편의점, 빨래방 등 생활밀접업종을 고립가구 지원 신청 접점으로 활용하고, 배달앱 플랫폼 내 고립 위험도를 체크할 수 있는 팝업창을 만들어 ‘똑똑

24’ 등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홍보한다. 배달앱사와 협력해 배달이 아닌 식당 방문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 외부 활동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다양한 경로로 찾아낸 고립·은둔 가구에 대해선 특성 진단 후 맞춤형 ‘서울 연결처방’을 연계한다. 고립청년이나 난임부부에는 정원과 산림을 활용한 마음산책, 원예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원처방’을 내린다. 도움을 거부하는 은둔자들은 ‘15분 외출처방’을 받게 된다.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난 시민에게는 지역사회와 돌봄 공동체를 이뤄 홀로 설 수 있게 돕는 ‘자립처방’을 내놓는다. 시는 사회와 단절로부터 탈출을 선언한 시민을 고립가구 치유 활동가로 양성하는 ‘모두의 친구’ 등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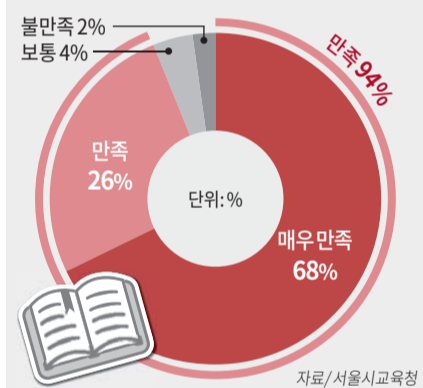
학교로 간 은퇴자... 학생 맞춤형 케어로 ‘윈윈’

서울교육청, 학생지원 활동가 파견 만족도 94%... 생활지도 등에 도움

은퇴자가 학교에 파견돼 수업 참여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 프로젝트가 참여 학교 대상 조사에서 만족도 94%를 나타내며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행 지역을 기존 구·군 지역에서만 영등포구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금천5플러스센터(센터장 김미성)와 협력해 4월 1일부터 27명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구로, 금천 지역 관내 25개 학교에 배치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란, 학교 생활 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 만족도



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장년층 봉사자를 말한다.

활동비는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1억원(추정)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활동가를 모집하고 학교에 배치했으며, 활동가들의 학생 및 학교 이해도 연수 등도 진행했다.

학교에 파견된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들은 수업 시간 중 매주 15시간, 월 57시간씩 학생 수업 시간 학습 활동과 학교 생활 적응을 1대 1로 밀착 지원해 학생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약 6개월간 시행된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 학교는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간 평가 설문에서 94%의 설문 참여자가 사업 운영에 대해 만족하는 등 학교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들의 수업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로 참여한 박찬진 씨는 “나의 활동이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딥페이크 피해학생, 일주일새 27명 늘어

누적 피해자 877명... 고등학교 54.8%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영상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학생이 일주일새 27명 더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 12~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 총 17건의 피해 신고가 더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교육 당국에 접수된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누적 533건으로 늘었다. 학생·교직원 피해자는 누적 877명이다.

추가로 접수된 피해자는 27명으로, 모두 학생이었다. 중학교에서 9건, 고

등학교에서 8건이 각각 신고됐다. 교직원 피해 신고는 없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총 16건이다. 영상 등의 삭제를 의뢰한 사안은 11건이다.

올해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누적 533건 중 고등학교가 과반수인 292건(54.8%)을 차지했다. 중학교 224건(42.0%), 초등학교 17건(3.2%) 등 순이다. 피해 신고 전체 533건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84.1%에 해당하는 448건이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22일 (화) 음력: 9월 20일

수도권 날씨 16~18°C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경기도 야생동물 ‘깃대종’ 지정

경기도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등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야생동물 31종을 ‘경기도 깃대종’으로 지정했다. 도가 깃대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깃대종(Flagshipspecies)이란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을 말한다.

경기도는 관련 용역을 통해 상징물, 특이종 등을 반영한 경기도 깃대종을 지정했다. 깃대종 수는 31개 시군을 상징해 31종으로 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미식 전문가가 뽑은 ‘서울미식 100선’ 발표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 식당 다수 포함

서울시가 ‘2024 서울미식주간’ 개최에 앞서 국내 미식 전문가 45인이 추천하는 레스토랑&바 리스트인 ‘2024 서울미식 100선’을 2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푸드 콘텐츠 전문가, 미식 여행가, 식음 저널리스트 등이 독창성, 전문성, 화제성을 고려해 엄선했다고 덧붙였다.

한식(21곳), 아시안(14곳), 양식(23곳), 그릴(11곳), 채식(10곳), 카페&디저트(10곳), 바&팝(11곳) 총 7개 분야로 구성됐다.

최근 큰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예능 프

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의 식당들도 다수 포함됐다. 중식대가 여경래 셰프가 운영하는 ‘홍보각’, 양식 셰프 최현석이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췌이닷’, 황진선이 오픈 셰프로 있는 중식 레스토랑 ‘진진’, 과감한 도전이 담긴 한식을 추구하는 김도윤 셰프의 ‘윤서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시는 지구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미식의 가치에 주목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브런치 카페와 사찰 음식 등을 별도로 소개했다.

서울미식 100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미식주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당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계획’ 유출 정황에 조사 착수
▲“X같은 부통령” 트럼프 발언에...해리스 “대통령 자격없어” /사진 뉴시스

▲총선 6일 남은 디이시바 지지율 33%...“지지·기대 높지 않아”
▲이스라엘, 레바논 베이루트·남부 맹공습...“헤즈볼라 자금지출 제거”



▲美·캐나다 군함, 대만해협 통과...중대만 포위훈련 옛세만
▲시진핑, 새 인니 대통령 취임에 “운명공동체 새 단계로” /사진 뉴시스